

KATE OH TRABULSI: FLOWERS FOR ALL SEASONS

Jonathan Goodman
December 2014

The Korean-born, New York-based painter Kate Oh Trabulsi has recently pursued Min-hwa art—traditional Korean painting—as a way of recognizing her origins in Asia. A painter of unusual technical skill, Trabulsi works consistently with lotus flower imagery, which connects with the Korean heritage of Buddhism. These ties, however, do not appear as anachronisms—rather, they strengthen her modern approach, which moves through decorative imagery to a spiritual understanding rooted in contemporary life. By choosing Min-hwa’s direct style, the artist passes on to her audience an imagery that speaks without excessive ornament. The spiritual implications of her work find their outlet in unspoken mediation between the artist’s belief system and that of her audience. In this way, she conveys a reality that broaches her past even as she looks to the present and future in America. Her work, consistent in its flower imagery, demonstrates a regard for symbolic implications that may be found in addition to the deliberate beauty of the picture itself.

The lotus leaf paintings demonstrate their adherence to Korean art history, while at the same time appearing directly modern. One picture of a white lotus, whose leaves are edged in multiple colors, exquisitely delineates the flower’s overall form. In the center is found an aggregation of small colored spheres—they represent the seeds, or center, of the bloom. The seeds, according to Trabulsi, “embody each individual’s dreams and hopes,” so that “each flower contains its own distinctive dream and unique future.” This understanding relates to the notion that we are all different, with different paths to be undertaken in life. Such differences are intrinsic to spiritual recognition of the individuality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국 출신 작가 케이트 오가 최근 한국의 민속 회화, 즉 민화에 대해 작업하며 아시아에 기반한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작가는 그녀만의 독특한 기법을 바탕으로 연꽃을 형상화한 이미지들을 끊임없이 그려내는데, 이는 한국의 불교 유산을 화폭 위로 옮겨놓는다. 그러나 이러한 둘의 만남은 시대착오적 발상의 답습이 아닌, 현대적 감각으로 작품을 풀어내 고자하는 작가의 의도를 뒷받침 한다. 단순한 장식적인 용도에서 나아가 이제는 현대 삶에 정신적인 영감을 주는 매개체로서의 의의까지 더해진 것이다. 정공법으로 민화를 대하는 작가는, 과도한 꾸밈 없이 본질만을 말하는 이미지 자체가 관객들에게 전달되길 의도한다. 이러한 내재적 함축은 대신, 작가와 청중의 신념 사이에 자리한 ‘무언(無言)의 명상’을 매개 삼아 의미를 표출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가는 자신의 과거를 관통해 미국에서 이어진 자신의 현재와 미래까지 생생한 삶의 일부분을 솔직하게 전달한다. 거듭 이어지는 꽃 이미지는 그림 자체에서 보여주는 심미적 즐거움뿐만 아니라 곧 상징적 함축을 보여준다.

이번 연꽃 연작은 한국 미술사의 흐름을 고수하는 동시에 현대적 모습 또한 담고 있다. 꽃잎 끝마다 색색이 물 들은 흰 연꽃 작품에선, 꽃의 전체적인 형태가 수려하게 묘사됐다. 그 중심에 자리해 시선을 끄는 형형색색 작은 구의 집합체는 꽃을 피우게하는 원동력의 중심, 즉 씨앗들을 대표한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이 씨앗은 “개개인의 꿈과 소망을 구현하는 매개체”로써 각각의 꽃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꿈과 유일무이한 미래를 품고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해는 곧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개별적 존재이며 그러므로 자신만의 다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삶의 소명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차이는 인간의 개성에 대한 정신적 자각에 내재된 것이며, 작가는 이것을 “자연 섭리의 일부분으로서의 제각기 다름”이라고 명명한다. 따라서 케이트의 예술은 종교적 교리를 넘어서 가지각색의 만물

of people; the artist calls this “differences that are a part of nature’s order.” Thus, Trabulsi’s art moves beyond doctrine to a perception of the world as vastly diverse in a way that reflects the diversity of nature. Yet she implies that a hidden unity joins the diversity into a single vision, one demonstrated by the artist’s work. It is clear that the artist believes in a universal approach in religion.

In Trabulsi’s paintings, often concerned with lotus leaves, we recognize that in reality they are not colored as occurs in her art, so the interpretation of them must be emblematic and symbolic. The center of the lotus is chief to its strength as a Buddhist symbol of faith—of purity, rebirth, and divinity. Clearly, Trabulsi is affected by the host of associations provided by the image; in another beautiful painting, the lotus has black and white leaves, with the colored seeds transforming the center of the plant. But, in addition to the doctrinal illustration of Buddhist precepts, Trabulsi has another aim: the transmission of Spirit, Unity, and Enduring Hope. These psychological strengths occur as a counterpart to the specifics of spirituality as the artist sees it.

Great care is taken to create a precisely formed imagery; the leaves overlap each other with exquisite imagery, while the colors of the seeds in the center naturally draw the viewer to contemplate their meaning in a religious sense. Both paintings remind us of religious and spiritual strengths—not by being dogmatically correct but by incorporating intimations of the system responsible for such imagery. Indeed, one part of her work has to do with cosmic relations: in an artist’s statement, Trabulsi asserts that her work “reflects my sense of a well-balanced universe that evolves mysteriously with great power but internal order.” The recognition of this perception may be based in religious insight but carries over to a vast, universal view of the world. Her thought incorporates religious truth but in fact moves beyond it to a universality affecting everyone.

In another large painting, Trabulsi has painted a spiral moving outward and consisting of 108 lotus flowers. Nearly a mandala of consciousness, the image refers to the 108 emotions recognized in Buddhist thought. The red-tipped leaves are striking and even moving within the constellation of their larger pattern. One feels that the painting exercis

을 담아낼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하고 다양한 세계에 대한 인식까지 포괄한다. 나아가 작가는 작품을 통해 무수히 작아 드러나지 않는 한 개체도 그만의 시각으로 그 큰 다양성에 목소리를 더한다는 것을 넌지시 보여준다. 작가가 종교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에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연꽃 잎으로 종종 회자되는 케이트 오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그림에 드러나는 것처럼 현실의 연꽃 잎들이 형형색색 물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다. 따라서 그림에 대한 해석은 상징성과 전형성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작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꽃의 중심부분은 순수, 재생(再生) 그리고 불법(佛法)을 일컫는 불교 신앙의 상징으로서의 집합체이다. 분명히, 작가는 이미지가 부여하는 관계 그리고 상징성에 영감을 받았을 것이다. 꽃잎을 흑백으로 묘사한 다른 작품을 보면, 그 역시 색색의 씨앗들이 꽃의 중심으로 흘러들어간다. 불교 규범을 묘사한 교리적 삽화에 더해, 케이트 오의 작품세계엔 ‘정신, 화합 그리고 끝없는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의도가 있다. 이러한 내면의 의지는 작가의 관점처럼 정신성의 본질에 대한 대응으로 존재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작가가 구상한 이미지를 정확히 구현하기 위해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다. 잎들은 서로서로 포개져 그 정교함을 이루고 있고, 중심에 모인 씨앗의 다채로운 색들은 자연스레 관중의 시선을 끌며 종교적 의미에 대해 생각에 잠길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모두 교조적 시비를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러한 심상에 관여하는 장치에 대한 시사(示唆) 들을 엮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종교적, 정신적 가치를 일깨워준다. 특히 작품의 한 부분은 우주의 관계성과 연관되어 있는데, 작가의 작업 노트에서는 작품이 “천차만별로 다른 우리가 제각각 질서를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룬다는 경이로움”을 표현한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자각에 대한 인식은 다분 종교적 성찰에 기반해 있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광대하고 보편적인 관점에까지 그 의미가 확장된다. 작가의 시선은 종교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보편성까지도 담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큰 작품에선, 108개의 연꽃을 품은 채 밖으로 나아가며 회전하는 나선모양의 페인팅을 볼 수 있다. 만달라의 의식체에 가까운 이 이미지는, 부처의 말씀에서 나오는 108개의 번뇌들을 가리킨다. 끝이 빨갱게 물든 잎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보다 확장된 패턴으로 가득한 무리 속에서 그 동적인 움직임을 나란히 한다. 어떤 이는 이 작품이 부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조용한 시도라 느낀다. 그 평행선들을 이토록 명확하게 그려내하고자 함은 작가의 의식적인 계획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

es in a quiet way the precepts of Buddhist mind. Likely, it is not Trabulsi's conscious thought to draw out the parallels so consciously; instead, as happens with all good art, the points being made are implied rather than didactically dictated. The largest painting Trabulsi has worked on recently is a triptych of colorful lotuses in red, blue, and yellow. They hover in mid-air, against a neutrally colored background. While the piece may start out as an image approaching simple embellishment, the implications of the flowers refuse to let go of their accompanying art history. Trabulsi knows this well, and she uses the beauty of her art to suggest a deeper meaning. Her audience is wise to recognize the implications of her pictures, which compellingly intimate the spirit as well as the existence of psychological unities and the exacting characteristics of fine art.



Jonathan Goodman

Professor at Pratt institute In New York, Art Writer

러한 특징들은, 모든 좋은 작품에서 나타나듯 어떠한 교훈을 주기위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은연중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작가가 최근 작업한 대형작은 빨강, 파랑 그리고 노랑으로 입혀진 연꽃을 그린 세 폭의 연작이다. 꽃들은 공중에 머물며, 무채색의 배경과 대비된다. 이 작품이 단출하게 꾸며진 이미지로서 출발할 수는 있으나, 꽃의 함축적 의미들은 미술사에 빼놓을 수 없는 연결성을 놓아주길 거부한다. 작가는 이를 잘 알고있으며 따라서 보다 심층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작품의 미적 요소를 차용한다. 작가는 결코 쉽지 않은 순수 미술의 특성들, 정신적인 통합체들의 실재(實在)뿐만 아니라 작가 정신까지 설득력 있게 시사한다. 그녀의 작품 세계가 보여주는 이 내재된 의미들은, 관객들 역시 충분히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Saneun Hwang 황상은 (뉴욕 school of visual arts에 재학중)